

제 1 교시

국어 영역

○ 문항 수는 25개이며, 문항별 배점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점은 모두 4점입니다.

1. 다음 표의 ㉠~㉣에 들어갈 자음으로만 만들어진 단어로 알맞은 것은?

소리나는 위치 소리나는 방법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 천장 소리	여린입 천장 소리	목청 소리
파열음				㉠	
파찰음			㉡		
마찰음					㉢
콧소리	㉣				
흐름소리		㉤			

- ① ㉠ : 가꿈 ② ㉡ : 보풀
 ③ ㉢ : 황후 ④ ㉣ : 엄마
 ⑤ ㉤ : 라면

2. 길게 소리 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눈이 펄펄 내렸지만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자 ㉣별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정신없이 뱃머리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그의 ㉤발은 별침에 쏘여 통통 부어 있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리로 이루어진 단어는?

- <첫소리> 발음할 때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 보내면서 내는 소리
- <가운뎃소리> 혀의 뒤쪽에서 소리 나면서 입술이 평평한 상태에서 혀의 위치가 낮은 곳에서 나는 소리
- <끝소리> 센입천장과 혀바닥에서 소리 나면서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나는 소리

- ① 맘 ② 엽
 ③ 랑 ④ 낮 ⑤ 달

() 학교 () 학년 이름 ()

4. 다음의 단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낮이 (입을 벌리는 정도)				
고모음 (폐모음)				
중모음 (반개모음)				
저모음 (개모음)				

<보기>

수정 : □ 내 □가 잘 했어야 했는데.
 민기 : 뭐? 내가 잘 했어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수정 : 아니. 니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민기 : 아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 네 □'가 잘 했어야 했는데.'로 들었어. 그런데 '니가'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수정 : 맞아. 그런데 '내'와 '네'가 혼동되니까 현실적으로 '니가'를 사용하기도 하지.
 민기 : 아, 그렇구나. '내'를 발음할 때는 □ ㉠ □

- ① '네'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② '네'와 달리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야겠구나.
 ③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높이지게 해야겠구나.
 ④ '네'와 달리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아야겠구나.
 ⑤ '네'와 달리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겠구나.

(5-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 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처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그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을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나 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서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 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어 어, 내 노새.” /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나) “이제 오니?” /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아 온 밥상을 한옆으로 밀어 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드러누고 말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별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 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 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 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협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 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찌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 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

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라)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 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고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 “으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힃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 노새가 되는 것일까?

(마) 그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여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봉봉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뽕뽕거리고, 자전거가 썽썽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5.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마차에 묶여 있던 노새는 마차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자 자유의 몸이 되어 달아난다.
- ② 말 마차를 끌던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온 후에는 노새로 바꾸어 마차를 끌었는데, 노새가 말보다 힘이 좋아서인지 아버지의 일감이 늘었다.
- ③ 아버지는 삼륜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④ ‘나’는 얼룩말 앞에 멍하니 서서 얼룩말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오랜 세월 그와 함께 한 노새와 닮았다고 느낀다.
- ⑤ 달아난 노새를 찾지 못한 아버지는 나를 앉혀 놓고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자신이 노새가 되어 돈을 벌며 살아가겠다고 웃으며 말한다.

6.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에서 사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안에서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서 주인공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드러낸다.
- ④ 작품 안에서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다.
- ⑤ 서술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7. ㉠의 [오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격지심
- ② 자동차를 소유한 새 동네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 ③ 노새를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 ④ 아들에게는 자신의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
- ⑤ 시대의 변화와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8. 소설을 읽고 난 후, 이 소설을 소개하는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소설의 핵심 소재를 제시할 것.
- 비교나 대조의 방법을 활용할 것.
-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낼 것.

- ① 힘겹게 연탄 배달을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1970년대 우리의 아버지들의 서럽지만 가슴 따뜻한 서사.
- ② 평생을 힘겹게 살아야 하는 노새를 자유롭게 한 것이 순간의 사고였다면, 노새를 닮은,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서글픈 아버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 ③ 무거운 짐을 벗고 결국 자유를 찾은 노새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어떤 짐도 벗지 못하고 과거의 자신에게만 매달려 급변하는 시대를 초라하게 지나는 또 다른 노새가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
- ④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던 도시 하층민들이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러한 어른들을 바라보며 사는 아이들의 아픔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적인 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 ⑤ 자동차와 비행기, 헬리콥터가 다니는 복잡한 도시에서도 곳곳하게 제 몫을 하며 살아가는 우직한 노새와 그 노새를 부리며 힘들지만 당당하게 살았던 노새를 닮은 아버지, 그 둘의 가슴 뭉클한 우정 이야기.

9. (마)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같은 노새’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들을 가리켜.
- ② ‘비행기’, ‘헬리콥터’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소재들로 ‘노새’와 대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
- ③ ‘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린 나이지만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
- ④ 노새로서의 삶을 살기로 한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며 ‘나’는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알 수 있어.
- ⑤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라는 부분을 통해 아버지를 비꼬는 사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어.

(10-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북 언어 의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 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 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난다.

(나) ㉠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남한은 두음 법칙을 따르고 북한은 따르지 않는다. 또 남한은 사이시옷의 표기를 하는 반면 북한은 쓰지 않는다. 어휘를 보면 남북의 일상 용어도 차이가 있다. ‘화장실’도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고 하고 ‘가르치다’는 ‘배워주다’라고 한다. 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소행’은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표현을 보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경험담을 들어 보면 축구를 할 때, “연락하라.”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공을 안 줘서 당황한 적도 있고, 수업 시간에 쓰는 말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고도 한다.

[A]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낭군이 이토록 과념하시니 부득이 참거니와,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망치의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나,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니, 흥녀는 기뻐하며,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희 외삼촌댁에 다녀오게 하고, 장쇠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가 듣고 옳게 여겨 장쇠를 불러 이리이리하라고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중간 줄거리] 장화는 장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니의 죽음을 슬퍼한 흥련 역시 자결한다. 장화 흥련 자매는 원귀가 되어 부사를 찾아와 원한을 풀어 줄 것을 하소연한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물어 말하기를,

“네 말이 그러할진대,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족히 알겠다.”

흥녀 대답하여 여쭙기를,

“소녀의 골육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깊이 장지하였다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 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기를,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니 내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그날 밤에 흥련의 형제가 완전히 부사 앞에 나타나서 절하고 여쭙기를,

“소녀들이 천만 의외에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소녀 자매의 누명을 설원할까 바랐었는데, 사또께서 흥녀의 간특한 꾀에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쭙기를,

[B]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십시오. 옛날에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뼈에 사무친 원한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이거늘, 이제 사또께서 잔악한 계집의 말을 곧이들으시고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흥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녀 자매를 천만 긍측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 주시고, 소녀의 아버지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흥녀의 간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충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흥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반공에 솟아 갔다.

- 작자 미상, 「장화흥련전」 -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ㄷ. 사실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서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 ㄹ.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4. 위 글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사’는 ‘흥녀’의 증거물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 ② ‘좌수’는 자식의 생명보다는 가문의 체면을 중시한다.
- ③ ‘장쇠’는 ‘장화’를 미워하기 때문에 흥녀의 계략에 가담했다.
- ④ ‘장화’ 자매는 ‘부사’의 도움으로 원통함을 해소하려고 한다.
- ⑤ ‘흥녀’는 과장된 행동을 통해 ‘좌수’의 결단을 유도하였다.

15. [A],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을 치켜세우며 비위를 맞추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상대방을 비난하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 ③ [A]는 고사를 인용하여, [B]는 권위자의 견해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 ④ [A]는 상황의 시급함을 들어, [B]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며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⑤ [A], [B]는 모두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19.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 상관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④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며 밤길 예눗다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나)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 박팽년, <까마귀 눈비 맞아>

(다) 어버이 ㉠ 사라실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㉔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 정철, <훈민가> 제4수

(라) 오늘도 다 ㄹ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 정철, <훈민가> 제13수

(마)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늑기도 ㉔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 정철, <훈민가> 제16수

20. (다), (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의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이다.
- ② (라)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 ③ (마)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근면, 상부상조’이다.

- ④ (다) ~ (마)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다) ~ (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백성의 눈높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21. 시조 속 낱말의 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고
- ② ㉡ : 사라질 때
- ③ ㉢ :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
- ④ ㉣ : 날이 밝았다.
- ⑤ ㉤ : 서럽다 하는데

22. <보기>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시조는?

<보기>

심청은 가난한 봉사 심학규의 딸로 태어나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눈먼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자란 뒤에 아버지를 지성으로 모셨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부쳐님께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물로 자기 몸을 팔았다. 병을 앓던 용왕은 인당수(印塘水)에 빠진 심청의 간을 빼서 병을 치료하고 심청을 연꽃에 태워 다시 인당수로 보냈다. 그때 마침 지나던 뱃사람들이 이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다. 연꽃에서 나온 심청은 왕과 혼인하였다. 왕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온 아버지는 딸을 만나자 반가움과 놀라움에 눈을 떴다.

아버지를 위하여 가룩한 정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심청의 효성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이 이야기에서 효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여겨진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지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이 늙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층간 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이웃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지요?

우리 아파트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 소음도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함께 사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불편을 헤아려 조심하고, 소음이 생길 일이 있을 때에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 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갑시다.

(나)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집니다. 나는 내 인생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지요.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 버립니다.

23. (가)와 같은 논증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나비와 매미는 곤충이다. 따라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
- ② 공자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두 죽었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 ③ 우리 집 마당의 닭과 오리, 거위는 알을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는 모두 알을 낳기 때문이다.
- ④ 사자도, 호랑이도, 개도 모두 새끼를 낳는다. 사자, 호랑이, 개는 포유류이다. 그러므로 모든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 ⑤ 미래는 손이 예쁘다. 미래의 엄마와 동생도 손이 예쁘다. 미래와 엄마, 동생은 가족이다. 따라서 미래의 가족은 모두 손이 예쁘다.

24. (나)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의 삶에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 ② 앞으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녀야겠어.
- ③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했던 때가 생각나.
- ④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글이야.
- 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구나!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거야.

25. (가), (나)의 논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 (나) 모두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가), (나) 모두 유사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임을 추론하고 있다.
- ④ (가)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으며, (나)는 일반적 원리를 통해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는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나)는 유사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임을 추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수고했습니다.